

“선학원 문제, 대화 통해 해결해야”

이사진의 만남 거부에도 불구하고 원로회의 의장단은 거듭 강조 ‘선학원정상화추진위’에 당부

원로회의가 제안한 종단과 선학원의 만남을 선학원 이사진이 거부한 가운데, 원로회의 의장단이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스님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선학원과 대화를 추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원로회의 의장단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 스님들은 지난 23일 서울 AW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과 부의장 명선스님,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범등스님, 상임위원 현진·도진·범준·강철·진각스님,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선스님 등이 참석했다.

원로회의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의 제안을 수용해 선학원 이사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선학원측이 불참하면서 향후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위가 원로회의 의장단 스님들의 자문을 구하는 자리로 변경해 진행했다. 이에 앞서 선학원은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과 원로의원 스님들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3항 폐지를 주장하며 “별변된 상태에서 결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모임에서 스님들은 종단이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원로회의 의장단 스님들은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종단과 선학원이 갈라서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선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한 뒤, “어

려움이 있더라도 종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다시 한 번 선학원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은 “종단과 선학원 양 쪽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이고자 한 것이다. 원로의원 스님들도 선학원을 도와주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종단이 선학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줘야 한다”며 “힘이 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끝까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의장 명선스님도 “스님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 선학원 이사진뿐만 아니라 전체 스님들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서로가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 초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조계종 포교원 산하단체가 지난 23일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구호기금 4000여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송묵스님, 자공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윤기종 포교사단 수석부단장,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

네팔 돕기 위한 아름다운동행 지속

한마음선원 5000만원 보시 이어 포교원 산하단체도 4000여만원

지진 발생 석 달여가 지났지만 무처님 탄생지인 네팔을 돕기 위한 불교계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스님·사진)이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네팔 구호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단체인 포교사단(단장 광명희)을 비롯해 불교여성개발



원(위원장 박순),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외군) 등도 4069만8320원을 전달하며 정성을 보였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스님은 “불교여성개발원에서 570만원, 그 외 포교사단에서 3600만원의 기금을 모아왔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구호기금을 모으느라 고생했다”며 “아름다운동행과 논의해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을 복구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잘 쓰겠다”고 회답했다. **이경민 기자**

“말은 소임에 최선을”

기획·호법 국장급 인사



감사국장 해랑스님 호법국장 보운스님 조사국장 석운스님 상임감찰 덕운스님 조사과장 범하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총무원 국장급 스님들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기획실 감사국장 해랑스님, 호법부 호법국장 보운스님, 조사국장 석운스님, 상임감찰 덕운스님 등 국장급과 조사과장 범하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말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국장 해랑스님은 정념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사미계, 200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상원사 정량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현재 중대사지암 감원을 맡고 있다. 호법국장 보운스님은 해경스님

을 은사로 출가해 1989년 사미계, 199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어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금정총림 선원, 범주사 총지선원, 덕숭총림 선원, 묘관음사 길상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총무원 감사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백용암 주지를 맡고 있다. 조사국장 석운스님은 수진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사미계, 200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팔공총림선원, 쌍계총림선원, 범주사 총지선원, 해인총림선원, 영축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상임감찰 덕운스님은 무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사미계, 200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직지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마곡사 태화선원, 공림사 감인선원, 용주사 중앙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석남사 주지, 총무원 사회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사과장 범하스님은 진옥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사미계, 2003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송광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총무원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허정철 기자의 현장에서 hjc@ibulgyo.com

누구를 위한 ‘궁스테이’인가

최근 문화재청이 서울 창덕궁 낙선재 권역을 외국인 및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고가의 숙박시설로 개방하는 ‘궁(宮) 스테이’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문화재청이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낙선재 권역 석복헌과 수강재 두 전각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하루 숙박료는 최소 300만원으로 잡고 있다.

조선 헌종이 1847~1848년 지은 창덕궁 낙선재 권역은 보물 제1764호인 낙선재와 동쪽의 석복헌, 그 옆의 수강재 등 총 9개 건물로 구성됐다. 영친왕의 부인인 이방자 여사, 고종황제의 외동딸 덕혜옹주가 살던 곳이다. 문화재청의 외동딸 덕혜옹주가 살던 곳이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낙선재는 개방하지 않지만 석복헌과 수강재는 숙박시설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목조 건물을 숙소로 바꾸면 망가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굳이 숙박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곳은 그동안 갖은 증·개축으로 문화재 지정에서 빠져왔지만, 목재를 짜맞춘 방식이 뛰어나고 건축미를 갖춘 좋은 목조건물이다. 또 궁내 전체가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 건물을 숙소로 개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목조문화재인 한국의 궁궐은 송례문 방화사건에서 보듯 화

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궁궐 활용의 사례로 드는 스페인의 파라도르 호텔 등은 석조문화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외국 외교사절과 CEO 등에게 1박에 300만원을 받고 개방하는 것도 논란의 불을 지폈다. 모든 계층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돈 벌기 위해 문화재를 활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행히 비난 여론이 일자 문화재청은 “타당성 검토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언제든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문화재 훼손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국민 힐링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를 무리하게 궁궐에 적용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종단협 “네팔 성금 1억5600여만원 기부”

9월 13~17일 ‘한중일 대화’ 확정 흥파스님 발전기금 3천만원 기탁

종단협이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한 성금 1억5600여 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제18차 한중일대화에서 원폭 희생자 추모 위원회 및 평화기원법회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불기2559(201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네팔 지진 참사 이후 종단협 회원종단이 모연한

성금 1억5615만3000원을 네팔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오는 9월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일정도 확정했다. 교류대회는 9월14일 한인 원폭희생자 추모 위원회를 비롯해 9월15일 세계평화기원법회 및 국제학술강연회, 9월16~17일 성지순례 등의 일정으로 4박5일간 진행된다. 또 지난 30년 동안 종단협 사무총장을 역임해온 부회장 흥파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흥파스님은 종단협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7월22일 종무회의)

| | | | | | | | |
|----------------|----------------|----------------|----------------|----------------|----------------|----------------|----------------|
| 도철스님 안양 한미사 | 성인스님 평택 수도사 | 자연스님 수원 불명사 | 대우스님 괴산 남화사 | 무광스님 서울 보경사 | 공관스님 천안 안석사 | 도수스님 보령 종대암 | 자명스님 예산 대려사 |
| 정호스님 서산 미륵사 | 서원스님 예산 마하원 | 육통스님 홍성 세심사 | 적인스님 김천 용화사 | 정광스님 청도 적전사 | 범인스님 대구 금정사 | 원종스님 창원 성주사 | 무관스님 부산 금용암 |
| 지장스님 부산 불국사 | 명국스님 산청 청송사 | 성민스님 홍천 백라사 | 범종스님 안동 광흥사 | 덕산스님 전주 금암사 | 영명스님 전주 칠성사 | 동현스님 광주 신광사 | 견허스님 아산 윤정사 |

혜충스님과 함께하는 실크로드 불교유적순례

2015년 승려연수교육으로 혜충스님과 함께하는 실크로드 불교유적순례를 9월 4일(금)부터 11일(금)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오늘날의 시안)에서 시작해 부처님의 불자사리가 봉안된 법문사를 거쳐 맥적산, 병행사 석굴을 지나 하서회랑을 거쳐 만리장성의 서쪽 끝인 가옥관과 유원굴, 돈황의 막고굴까지, 그리고 서유기의 무대인 화염산과 투르판의 베제크릭 천불동, 우루무치 천산과 천지까지의 실크로드를 순례합니다.

- 일 정 : 9월 4일(금) ~ 11일(금)
(음 7.22~29일, 8일간)
- 동 참 금 : 199만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638856
(예금주: 휘닉스항공여행사)
- 장 소 : 서안→천수→난주→가옥관→돈황
→유원→투르판→우루무치

강의 1. 실크로드의 불교유적
강의 2. 신라 구법승의 생애
강의 3. 실크로드의 석굴과 불교미술

● 주최 :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주관여행사 : 휘닉스항공여행사
● 접수 및 문의 : 02)722-0042